

Sermon Notes:

서론: 이스라엘의 지나친 선민사상 -> 민족주의, 율법주의
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는 바울과는 대조

본론:

1. 바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
 - 가. 선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음 (4-5 절)
 - 나.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
2. 질문: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는가?
 - 가. 버리지 않으심. 실패가 결코 아님 (6 절)
 - 나.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: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짐
3. 약속의 자녀 vs 육신의 자녀 (8 절)
 - 가.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
약속의 자녀: 아브라함 -> 이삭 -> 야곱
 - 나.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
육신의 자녀: 아브라함 -> 이스마엘 -> 에서
4.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(13 절) -> 선택과 예정
 - 가.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 -> 선택이 공평한가?
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자!
 - 나.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 -> 예정
예정론이 되면 생기는 모순: 모두의 구원 vs 다른 계획
신비한 섭리는 누구도 모름 -> 지나봐야 알 수 있음
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믿고 돌아오게 됨
Messianic Jews: 핍박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

결론: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선택받은 자녀가 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로 사십시다!

암송구절: 로마서 9 장 8 절

‘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’

Memo/Reflection:

1. 예정론과 선택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?
2.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?
3. 마지막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?